

공민전 수상문음집

디
카
시

시험기간

우수

분필

우수

벚꽃노래

우수

한송이의 영기

우수

비비추의 졸업

우수

올해 할 일입니다

우수

관제

최우수

혼자 피는 꽃

최우수

기다림의 봄

최우수

아름다운 이별

최우수

이번생 주인공입니다

최우수

노명

대상

목차

녹명 (부제: 綠名을 錄名하다)



음트는 초록빛이 이다지도 생소한 것은 차가웠던 지난겨울이 길었기 때문일까?
긴 겨울을 이겨낸 작은 생명은 마침내 초록빛 저의 이름을 세상에 적어 내린다.

나는 그 초록빛 이름을 보며 알게 된다.

기나긴 시간을 견디면 나의 잿빛 이름도 언젠가 닳선 초록빛을 틈을 것이라는 걸.
누군가의 마음에 푸르게 적혀질 그 이름은, 추위를 살아낸 나일 것이라는 걸.

이번생 주인공은 나야나

최우수상



나는 주인공이다.

이 세상 단 하나의 존재로 살아가는 지금
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우뚝 선 저 꽃몽우리처럼
나아가 활짝 필 날만 남았다.

아름다운 이별



“넌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”

“그동안 고마웠고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랄게”

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아름답게 헤어졌다고 말하겠지만

우린 알잖아

흰 꽃들 뒤 그림자가 얼마나 깊었는지

기다림의 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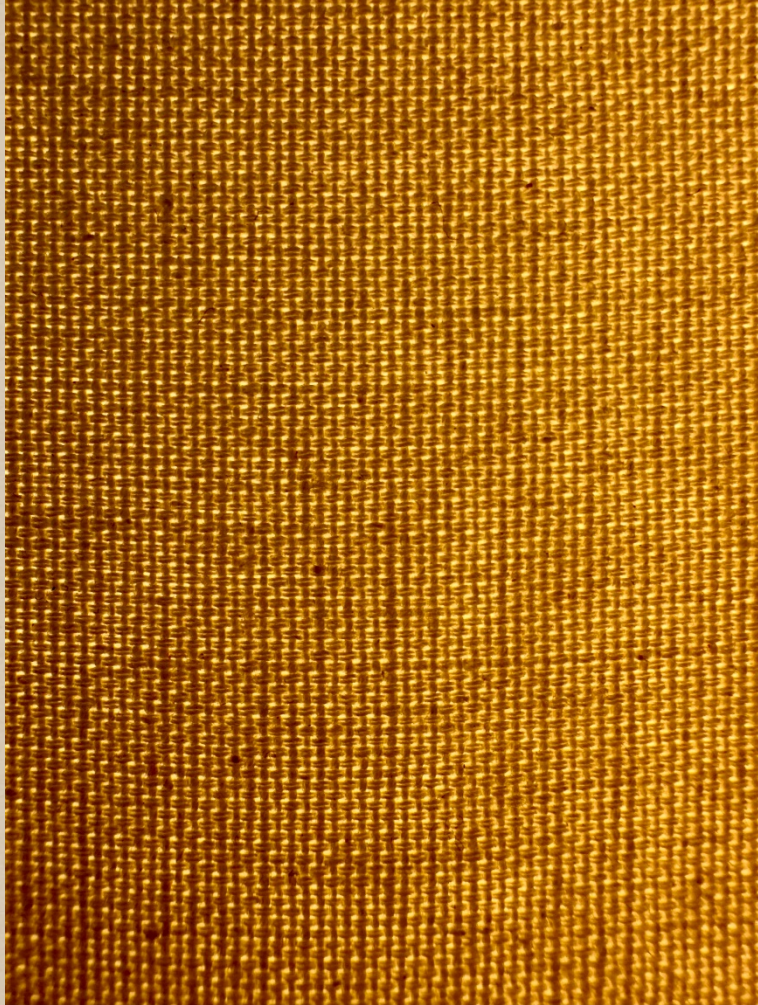
그대를 기다리면 기대가 된다.
기대를 저버려도 그대는 온다.
텅 빈 운동장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
자리 잡고 기대어 앉아 기다리면
살금살금 더디게 그대가 온다.

혼자 피는 꽃



이른 봄이 찾아와 차가움을 견디며 피어난 꽃들이
할 일이 없어 가동주놀하여 뽀내기에 바쁜것이냐
화려한 군중들의 만 송이 벚꽃은 봄의 시샘 한 번에 좃붙처럼 꺼졌거늘
가녀린 한 송이의 섬섬옥수 꽃잎들이 독야청청 하는구나
백만 송이 꽃들도 홀로 피는 너와 나보다 나을 수 없으리

관계



직조방식중 능직도 수자직도 아닌 평직은
가장 기본이면서도 만들기 쉽다.

그런데도 세 직조 방식중엔 마찰엔 가장 강하다.
그래서 그런가 사람은 타인과의 마찰에 너무 약하고 상처 받는다.
하느님이 우리를 빛을 때 얼마나 어려웠길래.

올해 할 일은 끝



한 해 동안 품어온 아름다움
모두에게 추억으로 전해주고
땀에 젖어 홀로 있는 내 모습
나 오늘부터 다시 내 모습가꿔
내년 이맘 때 나를 보고 다시 봄이라 불러 주오

비비추의 졸업



비비추는 어린잎을 먹는데
거품이 날 때까지 비벼 먹는다고

비비추다

나도 어릴 때 입학해서
거품이 나도록 비벼지고
졸업한다

한 송이의 용기



완전한 화려함에 이르기까지
꽤나 볼품없을 긴 여정을 알기에
그게 난 두려워 여전히 앙상함에
머무는데
오늘도 꺾꺾이 한 송이를 피워냈더라
참 용기 있다, 너

벚꽃노래



바쁜 일상에 시간과 경쟁하는 하루를 보낸다.

하지만, 이날은 달랐다.

벚꽃이 흩날리며 노래하던 이 순간,

내 안에 꿈틀거리던 낭만은 뜨겁게 불타올랐다.

그 순간, 나는 시인이 되었다.

분필



배움은 분필같은 거래
다 지워지는 것 같아 보여도
붉게, 또 노랗게 쌓이는 거래
그 별 거 아닌 가루들이 모여 내가 되는 거래
그러니, 오늘도 조금 더 지우면 되는 거래

시험기간



봄 내음 가득한 날 푸릇푸릇한 잔디밭에서
뛰노는 너희들을 보니 절로 웃음이 나네.....
아 잠시만 지금 웃을 때가 아닌데?
다다다다다다 (뛰는 소리)
출석 체크 하겠습니다

감
사
합
니
다